

아리타 세라(Arita Será)(자세한 내용)

아리타 세라(Arita Será)는 아리타 도자기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야외 대형 쇼핑몰입니다. 원래는 1975 년에 아리타 도자기 도매 단지 협동조합이 보관 및 도매 장소로 사용하기 위해 개설한 곳입니다. 소매업자들과 식당 주인들이 도매업자들로부터 대량의 재고를 직접 구매하기 위해 방문했습니다. 그러나 1990 년대부터 2000 년대에 아리타산 자기의 수요가 감소하면서 많은 도자기 공방이 고객에게 직접 판매하기 시작했고 많은 도매업자도 일반 소비자를 위한 판매로 전환했습니다.

2018 년에 도매 단지는 아리타 세라(Arita Será)로 재탄생했습니다. 세라(Será)는 ‘seller(셀러)’와 ‘ceramics(도자기)’의 일본어 발음을 조합한 것입니다. 이 쇼핑몰은 도자기를 쇼핑하면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설계되었습니다. 22 곳의 전문점과 더불어 레스토랑과 부티크 호텔도 있습니다. 아리타 세라(Arita Será)는 일본 최대 아리타 도자기 쇼핑몰이며, 아마도 세계에서 유일한 쇼핑몰일 것입니다. 그리고 매년 봄에 이곳을 포함한 아리타초 내 전역에서 개최되는 아리타 도자기 시장은 아리타초 최대 규모의 이벤트이자 일본 국내 최대 규모의 도자기 시장입니다.

각 매장은 여러 도자기 공방의 제품을 취급하고 있으며, 일상용 식기, 업무용 상품, 선물, 고급 미술품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아리타 세라(Arita Será)를 운영하는 협동조합은 아리타초 내 몇 곳의 도자기 공방과 협력하여 가정용 도자기 오리지널 시리즈 ‘다쿠미노쿠라’를 만들었습니다. 생산자, 소매업자, 소비자의 니즈를 반영해 만들어진 이 시리즈의 상품은 일부 매장에서 정가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